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회의
2007년 5월 16일

차례

머리말.....P 2

1. "최중요 항목 10".....P 7

1. "항공 자유화(아시아·오픈 스카이)"를 지향한 항공정책 전환.....P 8
2. "무역절차 개혁 프로그램"을 착실히 추진.....P10
3. 아시아의 수준 높은 인재 네트워크의 허브를 지향한 유학생 정책 재구축.....P12
4. 세계에 열린 대학 창조.....P14
5. 아시아의 이용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금융자본 시장을 구축.....P15
6. 글로벌화 과정에서, 성장하는 농업으로 변혁.....P17
7.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조개혁 특구(가칭) 창설.....P19
8. "일본문화 산업 전략"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P20
9. 일본의 매력을 해외로 발신.....P21
10. 아시아 공통과제에 관한 협력·연구를 위한 핵심기능 강화.....P23

2. 중점 7 분야.....P25

- (1) 인류·물류 빅 뱅(big bang).....P26
- (2) 국제적 인재 수용·육성 전략.....P28
- (3) 일본 및 아시아의 금융자본 시장 기능 강화.....P30
- (4) "국내시장형"산업의 경쟁력 강화.....P32
- (5) 아시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전략.....P33
- (6) 일본의 매력을 향상·발신.....P35
- (7) 아시아의 공통적 발전기반 정비.....P37

맺음글.....P39

참고자료 1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회의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회의 검토 경위

별첨 1 무역절차 개혁 프로그램

별첨 2 일본문화 산업 전략

머리말

21 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이다.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 각국의 경제부흥,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대두(臺頭)는 아시아의 잠재적 성장력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이름 아래 지역 협력이 진전되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 연계·경제 협력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자세, 미국 등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 가속화 등 최근 아시아 역내의 경제 질서는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제도를 개혁하여 속도감 있게 국가를 개방할 것이 여러 나라에게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사회를 볼 때 글로벌화 특히 격변하는 아시아의 현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일본 경제는 긴밀화하는 아시아의 지역 질서 속에 단단히 편입되어가고 있으며, 과거 "아시아와 일본"이라는 수직적 관계는 "아시아 속의 일본"이라고 불려야 할 만큼 수평적, 전략적 관계로 변하고 있다. 아시아의 흐름에 일본이 뒤쳐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거인으로 있던 시대가 끝났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시아는 외환위기를 겪은 후 글로벌화를 주저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이 이러한 흐름에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세계적으로 봐도 일본이 아직도 "폐쇄적"인 인상이 짙다. 사실 글로벌화 흐름에 따르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시아와 세계의 가교가 될 게이트웨이 국가로서 일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사회 개방의 속도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인근 각국과의 유대를 강화한다면 일본은 아시아 각국과 번영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의 성장센터"인 아시아가 폐쇄적인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도 세계에 열린 지역("열린 아시아")으로서 발전해나가는 것이 일본에게도 세계에게도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든 일본에서, 사회를 한층 더 개방하면 아시아 및 세계의 활력을 활용할 수 있다. 개방은 곧 이노베이션 창조로 이어지는 열쇠가 된다. 일본국내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노동집약적인 상품 수입 확대는 물론 아시아 각국의 협력 아래 유능한 인재육성을 강화하며, 일본국내에서 그들에게 활약의 장소를 제공하는 의의는 크다. 또한 수출면에 있어서는 일본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 제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와 동시에 종래 국내 시장 중심 분야의 이노베이션을 촉진시켜, 해외 전개를 적극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문화나 소프트웨어 파워 발신 등이 일본의 수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농산물과 같이 현재까지 수입 위주로 인식되던 분야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국내와 외국사이에 교류와 융합이 진전되면 거기에 새롭고 커다란 가치가 생성된다. 이러한 교류는 무역이나 투자 등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자연의 혜택을 받은 오랜 역사, 문화, 전통을 가진 "일본다움"에 뒷받침된 문화 및 산업이, 한층 더 아시아 및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매혹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은 물론 각 지역마다 매력을 발신하여 아시아 및 세계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논어에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동화할 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君子和而不同,小人同而不知)"라고 있듯이 "일본다움"에 단단히 뿌리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사회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상호의존의 심화나 관광, 교육, 문화 등 인적·지적·문화적 교류는 상호 이해를 촉진하여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글로벌화 과정에서 아직도 여러가지 취약성을 가진 아시아는, 여전히 일본이 지닌 "지혜"와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와 지역적인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일본의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글로벌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하므로써, 일본의 국제적 지위 강화로도 이어진다.

"악마와 신은 디테일에 숨어 있다". 아시아 게이트웨이를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많다. 다면적으로, 디테일에 관심을 돌려 하나씩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전략회의에서도 이 점을 세밀하게 검토해왔다. 그 성과가 "최중요 과제 10", "중점 7 분야"이다. 다방면에 걸쳐 상세한 정책과제 리스트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만큼 일본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많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과제들은 일본이 지향해나갈 국가상이라는 큰 비전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국민이 이러한 비전에 대한 기본이념을 공유하고 아시아 및 세계의 사람들이 이 이념을 인지해야진정한 아시아 게이트웨이 확립이 실현되게 된다.

전략회의에서는 아래 목적과 기본이념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해왔다.

【구상의 목적】

- (1) 아시아의 성장과 활력을 일본에서 활용하고, 새로운 "창조와 성장"을 실현한다
- (2) 아시아의 발전과 지역 질서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한다
- (3) 매력 있고, 신뢰 받으며, 존경 받는 "아름다운 나라"를 지향한다

【구상의 기본이념】

- (1) 『개방적이며 매력 있는 일본을 창조한다』
 ~ 방문하고 싶고, 배우고, 일하고, 살고 싶은 나라로
 국내 시장의 개방성을 높여 아시아 및 세계의 사람들에게, 또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매력적인 일본으로 만든다. "폐쇄적이며 내향적"인 인상을 불식시켜 아시아 및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고, 배우고, 일하고, 살고 싶은 나라", "전세계의 문화·예술과 정보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를 창조한다.

(2) 『열린 아시아를 함께 창조한다』

~ 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방적인 지역 질서를 유지·심화
아시아는 역외 직접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 민간 경제활동의 긴밀화를 원동력으로 하여 실제적인 지역 질서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개방적인 지역 질서를 유지·심화시켜 지속 가능하고 새로운 성장을 지향하는 지역 질서를 함께 창조한다.

(3)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산다』

~ 다양성을 전제로 상호 이해·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
아시아는 언어, 종교, 문화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수용하고 공존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와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기반 위에서 문화 등의 다양성을 전제로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강화한다.

이 회의 명칭에도 있듯이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전략적인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속도를 의식하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과거 방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국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3) 큰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 또는 변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4)일본만이 일방적으로 제기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의 이해를 얻고 서로 협력하면서 추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좀더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시간축 문제에 대하여 논의 해보자 한다. 일본이 추진해야 할 항공 및 항만 등 인류(人流)와·물류(物流) 분야의 개혁은 시간과의 경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분야를 예로 든다면, 세계 여러곳에서 규제 완화가 진전되어 아시아 인근 국가들이 서로 수송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에 뒤늦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하네다공항 제 4 활주로 완성이 2010 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칫 대응을 잘못 하면 수도권의 하늘 그리고 일본의 하늘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아시아의 주요 항만에 비하여 경쟁력 면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 항만이 "무역절차 개혁 프로그램"에 제시된 예정을 되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모색이 시작되었으나 그 변화 속도는 너무도 느리다. 농업의 주된 인력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산업정책의 중점을 농업 경쟁력 제고에 둔다는 시점에 서서 조속히 발본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이들 정책과제는, 시간축을 명확히 정하고 가능한한 빨리 정책 효과를

현실화시킬 것이 요구된다.

둘째는, 과거 방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국적인 시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정부가 추진하여온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협력 협정은, 아래에 언급하게 될 "최중요 과제 10", "중점 7 분야"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의 중요한 요점이다.

예컨대 EPA(경제협력 협정)도 그렇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와의 관계를 전망하면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세안의 협력 강화 및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의 경제협력에 관한 16 개국 민간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 개시 등 최근 들어 주요국 간 경제협력 체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과제로서 일본도 협상 속도를 다그쳐, 나아가서는 인근 주요국 간 경제협력 협정 체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기에 와있다.

또한 개별 분야에 머물지 않고 되도록 포괄적으로 분야를 횡단적으로 바라본 시각에서 상대 국가나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발전단계는 다양한만큼 전략적 관계의 구축은 세밀하게, 되도록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별 분야의 이해 득실만을 신경 쓰는 종래식 발상으로는 국가의 전체적인 전략인식에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항공 분야가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 실현을 위한 최대 초점이라고 생각한다. 항공은 사람, 물품, 돈 등 모든 교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인프라(**infrastructure**)로, 항공 네트워크를 충실시키는 것은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의 게이트웨이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편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넓은 의미에서의 국익을 문제인식으로 서 강하게 의식하며, 전체적인 국민경제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정책을 크게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아시아 게이트웨이의 시점에서 여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일본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개혁문제를 진전시키는데 매우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는 일본 금융시장 강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나, "아시아의 이용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금융시장을 구축한다"는 아시아 게이트웨이의 접근 방식은 금융시장 강화의 돌파구로써 영향력 있는 정책수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시에 아시아지역이 방대한 저축을 형성하면서 유럽·미국의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아시아에 투자하는 비뚤어진 중개 구조, 불안정한 금융 구조를 바로잡는 돌파구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치앙마이합의(CMI), 아시아 독자적인 채권시장 육성 등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도,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글로벌화라는 시점을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세계 주요국 중에서 글로벌화를 빼놓고 고등교육을 고려하는 나라는 없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이러한 측면에서

크게 뒤쳐져 있다.

넷째로, 아시아 게이트웨이는 "아시아와 일본"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 속에 단단히 편입되는 "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관계를 전제해야 한다. 예컨대 유학생 문제는, 단지 일본으로 오는 유학생을 증가시키려는 국내적 시점이 아니라 아시아 각지에서의 교육 및 지원 문제와 일체화하여야 하며, 일본으로 오는 유학생 예비군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분야 전체의 협력관계 강화로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유학생 수용 수를 늘이려는 종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전 아시아의 교육시스템을 위해 일본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아시아 각국은 또한 글로벌화 과정에서 환경·에너지·국경을 초월한 범죄·감염증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유효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은 아시아의 지속적, 안정적 발전 유지에 이어진다. 일본이 이러한 글로벌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자세를 아시아 각국들도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화란, 외부를 향하여 나라와 사회를 개방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기 나라의 입지를 똑똑히 확인하고 필요할 때에는 강하게 주장해나가는 것이다. "일본의 매력 향상 및 발신"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작업 없이는 일본이 글로벌사회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번영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1. “최중요 항목 10”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회의는 “머리말”에 언급한 시점에 입각하여 아래 10 개 항목(“최중요 항목 10”)을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 실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최중요 항목으로 정한다.

1. “항공 자유화(아시아·오픈 스카이)”를 지향한 항공정책 전환
~ 항공 자유화(아시아·오픈 스카이)에 의한 전략적인 국제 항공 네트워크 구축, 하네다공항을 한층 더 국제화, 대도시권 국제공항의 24 시간운용
2. “무역절차 개혁 프로그램”을 착실히 추진
~ 국제물류기능 강화를 지향한 통관제도 등 개혁
3. 아시아 수준 높은 인재 네트워크의 허브를 지향한 유학생 정책 재구축
~ 새로운 국가전략 책정을 지향하여 관계자들의 힘을 결집
4. 세계에 열린 대학 창조
~ 대학 국제화를 지향한 경쟁적인 자금 배분 및 평가의 충실
5. 아시아의 이용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금융자본 시장을 구축
~ 아시아의 금융네트워크 일체화
6. 글로벌화 과정에서, 성장하는 농업으로 변혁
~ 기업가 정신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 활성화
7.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조개혁 특구(가칭) 창설
~ 특구제도를 활용한 지역에서의 아시아교류 촉진
8. “일본문화 산업 전략”에 기초한 정책 추진
~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풍부한 감성을 가진 토양의 충실과 전략적인 발신
9. 일본의 매력을 해외로 발신
~ 총리표창제도 창설 및 “일본 크리에이티브 센터”(가칭) 설립
10. 아시아 공통과제에 관한 협력·연구를 위한 핵심 기능 강화
~ 환경·에너지 등에 관한 국제포럼 개최 및 연구 네트워크 등 구축

1. "항공 자유화(아시아·오픈 스카이)"를 지향한 항공정책의 전환 ~ 항공 자유화(아시아·오픈 스카이)를 통한 전략적인 국제 항공 네트워크 구축, 하네다를 한층 더 국제화, 대도시권 국제공항의 24 시간운용

<항공 자유화(아시아·오픈 스카이)를 통한 전략적인 국제 항공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각국과의 국제 항공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향상 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까지의 항공정책을 크게 전환시켜 소위 미국식 오픈 스카이가 아닌, 국제적으로 봐도 손색 없는 항공 자유화(아시아·오픈 스카이)를 속도감 있게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간사이(関西)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에 관해서는일본을 대표하는 국제거점 공항에 걸맞게 노선 개설 및 증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시아 각국과 양국간 협상을 통해여객분야, 화물분야 양면에서 사업회사, 노선개설 지점, 편수등의 제약을 없애는 "항공 자유화"를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 공항과의 네트워크 충실 및 기능 분담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지방공항에 대해서도, 관광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시작된 자유화 협상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도 노선 개설 및 증편 등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 안전 확인, CIQ, 자위대 등과의 조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신고제로 추진한다. 또한 정기편개설의 전단계인 국제여객 전세편 개설을 적극 촉진한다.

수도권 공항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장래 수용규모 확대 등을 예상, 자유화에 대한 검토를 심화한다.

우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의 자유화 협상을 추진한다.(아시아국가를 우선함)

<하네다를 한층 더 국제화, 대도시권 국제공항의 24 시간운용>

대도시권 국제공항은, 국내항공 네트워크를 해외로 잇는 중요한 연결지점이다. 현재 저조한 심야, 조조(早朝) 이용을 촉진하여(24 시간화) 국제공항으로서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한다.

수도권의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재확장사업 완성 이전에도 국제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심야, 조조 이용이 가능한 하네다공항에서 유럽, 미주편을 포함한 국제 전세편노선 개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 특정시간대(여유가 있는 20:30-23:00 에 출발,

6:00-8:30 에 도착하는 시간대)에 대해서도 국제 전세편 개설 실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심야, 조조 이용 편의 개선 등 24 시간 충분히 활용되도록 가능한 시책을 강구한다.

또한 낮시간의 발착 범위 확대 등을 도모하고, 상하이 홍차오(上海虹橋) 간 전세편, 베이징 올림픽 기간중 임시 국제 전세편 등을 실현한다. 이와 더불어, 잠정적 국제선 터미널 확장, CIQ 체제 강화, 하네다-간사이-해외 노선 전개 및 환승시 편의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2010 년 재확장사업 등으로 국제화에 적극 대응한다. 증대되는 나리타공항(연간 2 만회 증가)·하네다공항(연 3 만회 증가)의 발착에 대해서는, 양 공항의 이용 편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수송과 국제수송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전략적으로·일체화시켜서 활용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하네다공항에 대해서는, 낮시간에는 병용을 개시할 때 국제 여객 정기편을 3 만회 취항시킨다.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거리 기준 뿐만 아니라 수요 및 노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단. 하네다에 걸맞는 노선을,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검토하여 금후 항공협상을 통하여 확정한다. 또한 소음문제 등을 배려하면서 화물편을 포함한 국제 정기편의 심야, 조조 취항(유럽, 미주 편노선도 가능)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공항(나리타공항·하네다공항)의 수용량 확대를 위하여 가능한 시책을 검토한다.

2. "무역절차 개혁 프로그램"을 착실히 추진

~ 국제물류기능 강화를 지향한 통관제도 등 개혁

사방을 바다로 둘러싸여 육로를 통한 글로벌시장으로의 이용이 불가능한 일본에게는, 공항·항만 경쟁력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러나 특히 항만은 시간·코스트 양 측면에서 아시아의 주요 항만에 뒤처져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IT화의 진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글로벌 규모의 기업들의 공급망(Supply Chain Management)이라는 "선" 관리의 구축, 또 미국에서의 9·11 테러 발생 이후 화물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감안하여, 특히 안전과 물류 효율화를 양립시키기 위한 제도·시스템 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상을 고려하여,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본의 무역절차를 국제적으로 통하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국가가 지향해나갈 목표의·방향성을 재검토하고 기본적인 인식 및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정표를 포함한 "무역절차 개혁 프로그램"으로 정비, 이번에 처음으로 관·민 합동으로 책정하였다.

앞으로 이번에 책정한 "무역절차 개혁 프로그램"이 당초 목표대로 착실히 실시되도록 그리고 국제정세 변화 등에 대응하는데 요구되는 재검토가 대담하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민이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무역절차 개혁 프로그램" 개요(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조)>

- **“보세반입 원칙” 등 재검토** : 수출 신고시 화물을 보세지역으로 반입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소위 "보세반입 원칙")를 비롯하여 전반 보세·통관 제도 개혁의 방향성과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제시, 2007 년도 내에 결론.
- **특정 수출신고제도의 이용 확대** : 법령준수(Compliance)우수업체가 보세지역으로 화물을 반입할 필요가 없는 제도인 "특정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체의 수출액이 2008 년 말까지 전체의 50%를 웃돌 것을 관·민의 당면 목표로 정함.
- **항만 심야 조조 이용을 추진** : 법령준수우수업체에 대한 임시 개청(開廳) 수수료 재검토, 지역의 요구 등에 맞는 구조개혁 특구제도 활용, 한시적 집중적 시행 등을 2007 년도 내에 추진.
- **항만절차 통일화·간소화** : 복수 항구에 기항한 경우에도 한번만 입력, IT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목표를 설정(2007 년도 "긴급대응" : 통일모델 양식을 국가가 책정, 2009 년 상반기에 첫 실현 목표, 2009 년도까지 3 년간 : "집중개혁기간"에 거의 실현).

- 항만행정에 대한 광역적 협동 추진 : 수퍼 중추 항만과 관련, 복수 항구에 기항한 경우에도 입항료등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대처하는 등, 일체적·전략적인 운영을 추진(2007 년도중).
- 일본판 AEO제도 구축 : 법령준수우수사업체에 대한 우대제도를 확충함과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안전관련 제도에 관한 상호 인증을 시야에 두고 정부간 대화를 촉진.(일미 간에 연구 그룹 발족 합의)
- NACCS 재검토 : 통관·검역·항만관련 절차 등에 관한 기간 정보시스템인 NACCS와 항만 EDI의 통합을 시야에 두고, 통합의 구체적 방안과 NACCS 센터의 운영형태에 대하여 2007 년 내에 결론.
- 앞으로의 후속조치 : 민간기업측 의견을 감안, 부처간 횡단적인 시야를 가지고 내각의 중요과제로서 범정부적으로 프로그램 개정을 실시. 관련부처는 국제물류경쟁력 파트너십영역을 활용하여, 늦어도 2009 년도 말까지 매년도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 프로그램 개정을 위하여 준비한다.

3. 아시아의 수준 높은 인재 네트워크의 허브를 지향한 유학생 정책 재구축

~ 새로운 국가전략 책정을 지향하여 관계자들의 힘을 결집

아시아 및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아시아의 수준 높은 인재 네트워크의 허브"를 지향해나가는 것은, 일본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고 일본의 소프트웨어 파워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유학생 교류의 확대는, 이러한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미래를 위한 큰 투자로, 산업계나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외국인에게 매력 있는 환경을 사회 전체가 창조해나가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장래 일본 및 아시아의 이노베이션 인력, 일본의 매력에 대한 이해자·발신자, 일본의 후원자를 키운다는 의의를 감안, 국가 전략적 과제로서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학생 10 만명 수용계획" 책정 이후 4 반세기가 경과, 국내외 상황도 크게 변한 점을 감안, 산업계·학계·관계의 힘을 결집하여 아래에 언급하게 될 "새로운 유학생 전략 책정을 위한 기본방침"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조속히 구체화하고 새로운 유학생 전략을 책정한다.

나아가,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일본 유학의 매력(강점·오리지널리티)을 평가·재인식하고 이를 제고해나가는 것이 유학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대전제가 될 것이며, 특히 대학의 연구·교육을 국제적으로 매력 있게 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다음항 "세계에 열린 대학을 구축" 참조)

<새로운 유학생 전략 책정을 위한 기본방침>

- (1)유학생 수용 세어 확보 : 세계 유학생시장의 급속한 확대(2015년에는 500 만명, 2025년에는 700 만명 규모로 보는 시산도 있음)를 감안하여, 세계에 대한 지적 공헌·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질적 측면을 확보할 것을 전제로, 앞으로도 최저 현행 수용 세어(5% 정도) 확보에 노력한다.
- (2)일본인의 해외학습 기회 확대 :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대학의 해외(offshore)·프로그램 및 단기유학 프로그램 등 개발, 젊은 연구자 파견제도의 충실, 청소년 교류 확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로의 파견 등을 추진한다.
- (3)캐리어·패스(career pass)를 내다본 산·학 협력 등 추진 : 일본기업에 대한 취업 기회는 일본유학의 큰 매력으로, 우수한 유학생의 육성·획득이 일본 경제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감안, 아시아 인재(人財)자금 구상 추진을 비롯한 산·학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인턴쉽 등의 충실,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유학생의 취직·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류자격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재검토한다.

(4)해외 현지 기능의 강화(일본으로 이어지는 게이트웨이를 세계 각지에): 사전 상담시에서 귀국 후 플로업에 이르기까지 중요성이 증대되는 해외 현지에서의 유학생 획득·지원 기능을 선진 각국 수준으로 제고시켜 일본으로 이어지는 게이트웨이 기능의 충실을 세계 각지에서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의 국제적 전개(더블 디그리 프로그램 제공 등), 해외 대학과의 협력·연계, 도일전 입학 허가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재외공관, 일본학생지원기구, 국제교류기금 등 각 관련기관에 대하여 대학·민간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의 역할분담 재검토를 포함하여 기능강화·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일본어교육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 거점 수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킨다.

(5)일본문화의 매력을 활용한 유학생 획득: "Popular Culture"를 비롯한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본유학(전문학교 등을 포함함)의 주된 동기의 하나가 된다는 점을 고려, 일본어 교육 및 일본문화 발신과 동일 거점에서의 유학생 지원 실시 등, 일본 크리에이티브 센터(가칭, 후술) 활용도 포함하여 문화산업 전략과 유학생 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6)국비 외국인유학생 제도의 충실: 대학의 인재 획득 인센티브(incentive)가 보다 더 발휘되도록 대학의 유학생교육 실적을 토대로, 전략적인 유학생 수용 프로그램에 대한 국비 유학생의 우선 배치를 한층 확충한다. 또한 지일파·친일파 엘리트 육성을 목적으로 한, 영 리더스 프로그램(YLP)의 충실을 추진한다.

(7)단기 유학생 수용 촉진: 수 주일간~1년 미만의 단기 교환유학 확대가 구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대학 단기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유학생용 숙소 정비·확보를 지원한다.

4. 세계에 열린 대학을 창조

~ 대학 국제화를 지향한 경쟁적 자금 배분 및 평가 충실

21 세기는 지식·정보가 가장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시대이며, 지식·정보가 집적되고 창조되는 곳에 사람, 물품, 돈이 모여 든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대학을 일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의 "지(知)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일본이 아시아 및 세계의 게이트웨이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국제적으로 매력 있고 수준 높은 교육·연구를 창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학생, 교원 등 국제교류 확대나 해외 대학과의 교육·연구 양면에서 연계를 촉진하여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해외의 활력을 일본의 대학에 도입하는 것은 많은 대학에게 있어서 유효하다. 대학의 국제화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창출 거점으로서의 대학을 활성화하여 일본의 전체적인 이노베이션능력 제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 내용을 추진한다. 여기서 대학의 국제화란 학생, 교원 등의 국제교류 확대, 캠퍼스의 다언어화·다국적화, 더블 디그리 프로그램 등 제공, 국제공동연구 실시·참여, 해외거점 설립·운영, 국제적 인지·평가 제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이며, 모든 대학이 일률적으로 지향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주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1)대학 국제화 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공표

- 대학 국제화를 촉진하고 우수한 사례를 보급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전국적인 조사를 조사내용 개선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하여 적극 공표한다.

(2)대학 국제화를 향한 경쟁적인 자금 배분을 발본적으로 확충

- 해외 대학과의 더블 디그리 및 쥬인트 디그리 등 국제적인 프로그램 개발, 영어를 사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 국제적인 대학 간 네트워크 참여 등 대학 국제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자금 배분을 발본적으로 확충한다.

(3)각 대학 및 제3자기관에 의한 대학 국제화 평가 충실

- 명확한 이념·목표를 설정, 이에 기초한 계획 수립, 실시,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제3자평가, 평가 결과에 의거한 개선계획 책정, 실시...등 자주적인 자체 개선 과정을 통하여 대학의 국제화가 촉진되도록 각 대학 및 제3자기관에 의한 대학 국제화에 관한 평가의 충실·발전을 도모한다.
- 이 경우, 국제화 평가의 지표 책정과 벤치마킹(benchmarking)에 관한 각 국 및 지역의 동향을 감안함과 동시에, 외국인 연구자 등의 국제적인 평가 그리고 학생, 산업계 등 "시장"에 의한 평가도 포함시켜, 가능한 한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평가가 다면적으로 실시되도록 배려한다.

5. 아시아의 이용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금융자본 시장을 구축 ~ 아시아의 금융네트워크 일체화

빅 बैं크(big bang) 이래, 일본에서도 금융 자유화가 진전되고 중국의 대두하는 등 세계 경제를 둘러싼 상황도 격변하였다. 국내 시스템 개혁은 물론, 아시아 역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국제금융분야에서의 일본의 지위 저하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국제금융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런던 시티가 뉴욕을 능가하여, 국제 금융센터로서 온 세계의 자금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 유로시장의 기능은 런던의 워블던형 금융업체, 베네룩스 3 국 등의 시스템, 세계 각지의 발행체·투자가들에 의해 지탱되는 것으로, 일개 국가에서 완결된 것이 아니다. 단, 그 유로시장에서는 엔 이외의 아시아통화 채권은 조건적으로 불리하거나 또는 발행하지 못한다. 또한 유로시장 자체가 자유시장으로부터 EU 지령을 따르는 규제시장으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풍부하게 축적된 자금이 아시아 역외의 금융 중개 기관과 결제시스템으로 인하여 유럽·미국으로 유출되고 유럽·미국측 투자로서 아시아에 환류되는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존재, 이로 인하여 아시아의 효율적이며 자율적인 성장 및 역내 금융서비스 분야의 이노베이션 발휘가 저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대세를 고려하여 일본의 위치를 런던, NY과는 다른 개성이 풍부한 금융시장으로 설정한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 역내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저축을 역내로 순환시키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 아래 아시아의 금융네트워크 일체화를 추진하여, 아시아의 이용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시장 구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금융자본 시장의 규칙과 감독당국의 객관적인 행동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투명성 및 사업체의 예견 가능성을 한층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시장간 경쟁이 격화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점이다. 필요한 개혁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혁 제안(10 가지 제안)>

※ 경제 재정 자문회의 등의 논의에 있어서, 아래 시점을 중시할 것을 제안.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일본을 아시아의 금융센터로 만들어, 역내 자금의 흐름을 활성화】

(1)아시아에 성장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 창설

- 아시아의 성장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예탁증권(JDR), 증권화 상품 활용, 영문으로 개시 촉진, 영어를 사용한 정보제공 강화, 아시아의 벤처기업 대상 투자 강화, 아시아 종합상품시장 창설 등

(2)국제적으로 손색 없는 금융자본 시장 인프라(기반시설) 등 구축

- 증권·자금결제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집중 결제 시스템을 창설
- 부동산 투자신탁 등을 활용한 대 아시아 투자 촉진
- 기관투자가 육성, 상품 다양화·상품성 개선, 기업통치 강화

(3)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시장의 창설 및 프로 육성

- 전문가 상호간 거래의 장을 창설하고, 영문 개시, 세금, 개시기준 등 규제를 완화
- 금융기관의 인사체계 재검토, 유학생 취직에 대한 산·학 연계 강화 등

(4)국제금융센터에 걸맞게 교통수단을 개선

- 대도시권 국제공항의 24 시간화, 항공 자유화(아시아·오픈 스카이) 추진

【금융감독 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

(5)규제·감독의 충실 및 투명성 제고

- 진정한 자주규제기관 기능 강화 등
- 금융자본 시장의 규칙과 감독당국의 객관적 행동기준을 명확화
- 관·민 교류 촉진 등을 통한 의사전달 개선

【아시아와 연대하며 아시아에 국제 금융자본 시장을 창설】

(6)역내 자금순환 장벽을 제거

- EPA 협상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적극 요구

(7)치앙마이합의(CMI)에서 더 나가서, 지역금융 협력을 강화

- 치앙마이합의 멀티화
- 인도와 유동적 지원 추진을 위한 약정 체결

(8)크로스 보더의 아시아 국제채권시장 창설 등

-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추진을 한층 강화
- 이슬람 금융을 추진

(9)아시아 공통의 금융 플랫폼 구축

- 금융개혁 경험에 기초하여 아시아 시장 정비를 위한 지적, 기술 지원 강화

【개혁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실시】

(10)필요한 정책을 약 3년간에 집중적으로 실시

- 특히 영문 개시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실현

6. 글로벌화 속에서 성장하는 농업으로 변혁 ~ 기업가 정신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 활성화

일본 농업의 특징은 선도(鮮度)·품질·건강을 중시하는 일본 음식문화를 배경으로, 품질을 세밀하게 관리하는데 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기업가 정신을 가진 농업경영자가 이업종(異業種)간 제휴, 최신 과학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를 시야에 둔 경영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영 전개를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강화하여, 농업이 "돈 벌 수 있는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자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촌지역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점을 전제하여 국내 시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큰 기회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세계에 열린 강력한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 제안(농업 활성화를 위한 4 가지 제안)>

(1) 기업가 정신을 가진 농업경영자의 경영 전개를 촉진

농산물 판매력 강화

- 시장으로의 "출하"로부터 소비자·수퍼마켓·외식·식품제조기업에 대한 "판매"로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항상 니즈를 의식하며 경영을 전개
- 제 1 단계는, 직매소·산지 직송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 판매
- 제 2 단계는, 수퍼마켓·외식·식품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량 판매(상품을 차별화하는 등 수입품보다 매력 있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제 3 단계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

이업종 간 제휴

- 판매, 재무 등 경영력 제고를 위하여 이업종(유통, 물류, 식품산업, 금융 등)간 제휴
- 단카이(團塊, 베이비 붐) 세대를 비롯하여 이업종 기업에서 활약해온 유능한 인재를 농업 경영 분야에서 활용
- 특히 법인경영의 경우, 다양한 인재끼리 짝을 편성하여 경영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

농업자 자체도 가공·외식 분야로 진출

바이오에탄올 원료 등 식용 이외 분야로 생산·판매를 확대

ICT·로봇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

- 개인적 노하우에 의존한 품질관리 방식을 시스템화하여 경영 규모 확대와 동시에 코스트 절감

취락 영농을 짊어질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취락 영농을 조직화하여 본격적인 법인경영자로 육성하는 방안, 또는 지역 내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를 육성하여 취약 내 영농을 그들에게 맡길 방안 중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
이러한 다양한 경영 전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외부 인재 활용도 포함하여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농지정책 개혁

기업가 정신을 가진 농업경영자의 경영 규모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농지를 농업경영자로 집적
농업경영자가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현재의 비효율적인 소규모 분산 상태에서 면적 형태로 집적
위 관점에 근거하여, 농지 이용을 주축으로 농지제도를 발본적으로 개혁
이를 통하여 경작포기지역이 해소되고, 국토·환경도 보전됨

(3)중산간(中山間) 지역 활성화

일본 농업생산의 약 40%는 중산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일정한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한 직접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특색 있는 생산품, 계단식 논 등)을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 도시 주민들과 협력하여 생산을 유지

(4)EPA 협상 등을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국제적 전개를 위한 환경 정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을 촉진

- 상대국의 농림수산물·식품 관련 제도 등 정보 공유화를 추진
- 무역절차 원활화·신속화를 추진

동아시아로 식품산업 진출

- 제품 수출부터 실시,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현지 판매로 이행
 - M&A에 대항할 수 있는 세계기업으로서의 식품메이커를 육성
- 일본의 음식문화·일본 브랜드를 해외로 발신

식물 신품종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자연조건, 영농형태 등을 공유하는 아시아에서, 일본형 농업모델을 활용한 기술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농업자 간 교류·협력을 추진

7.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조개혁 특구(가칭) 창설 ~ 특구제도를 활용한 지역에서의 아시아교류 촉진

자연, 역사, 문화, 전통 등 일본의 각 지역은 다양성이 풍부한 "매력의 보물고"이다. 이 보물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으며, 각 지역이 광역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의 지혜와 연구를 통해 지방 생산품과 지역 자원을 활용, Visit·Japan·캠페인 추진과 연계시키면서 "지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국제경쟁력을 가진 매력적인 지역(지역 브랜드) 만들기).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가 지역의 "지혜와 노력"를 자주적으로 추진, 개성적인 매력을 세계로 발신할 수 있도록, 국가적차원에서 구조개혁 특구제도를 유효하게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시아와의 교류 확대를 지향하는 지역의 독자적 시책(물류 효율화, 야간활용에 기여하는 무역절차 간소화, 외국인의 일본방문 촉진,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일본방문 절차 등의 원활화 특구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하는 시책에 대한 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선도적인 제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 지방이 아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의 종합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관·민 일체의 광역적인 계획 책정 등을 조건으로, 국가적으로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 검토한다.

8. "일본문화 산업 전략"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풍부한 감성을 지닌 토양 조성 전략적인 발신

이번에 책정한 "일본문화 산업 전략"은, 문화산업 전반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산업을 산출해 온 배경 및 그 의의 등 문화산업을 총체적으로 분석, 추진방안의 기본 틀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각 부처 등에서 이 전략이 제시한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며, 일본문화의 국제경쟁력 및 정보발신력 강화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일체적·전략적으로 노력한다.

<일본문화 산업 전략 개요(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참조)>

- 문화산업은, 개별 작품이 미치게 될 영향과 동시에 작품과 문화산업을 육성해 온 일본의 문화, 예술, 전통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문화의 힘에 대한 "동경심"이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되며 폭 넓은 산업에 미치게 되는 중장기적인 파급효과도 크다. 뿐만 아니라 "일본 브랜드" 가치의 증대, 일본 방문·교류 등을 통한 상호 이해에도 기여한다.
- 일본의 문화산업을 지탱하는 것은, 내외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세련시켜온 대중의 심미안(審美眼)과 표현력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정교한 공업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 서비스 그리고 오늘의 "Popular Culture"와 생활양식 등 갖가지 "꽃"을 피워왔다.
- 앞으로도 계속 세계에서 평가되는 "꽃"을 피워가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계승되어 온 생활양식, 풍속, 관습, 전통 문화와 예능 등 역사와 더불어 조성된 "토양"을 항상 풍요롭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 그리고 어린이에서 클리에이터(creator)에 이르기까지, 이를 직접 맡게 될 인재 강화가 열쇠가 된다.
- 일본은 아트, 디자인, 콘텐츠, 문화재, 그리고 의식주(衣食住) 등 생활양식 그 자체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하면, 전통과 테크놀러지로 엮어내는 "문화자원 대국"이다. 예컨대, 자연환경과 함께 해온 생활양식은 앞으로 중요한 문화자원이 될 것이다. 일본인 자신이 이러한 "일본의 매력"을 재인식·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지금 "꽃" 피고 있는 애니메이션, 만화 등 새로운 영역의 예술문화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일본의 매력"을 해외로 발신하여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등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재 육성과 법제도·계약제도 개혁 등 문화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양하고 다원적이며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넓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인 시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일본의 매력을 해외로 발신

~ 총리 표창·현창 제도 창설 및 "일본 크리에이티브 센터"(가칭) 설립

<총리 표창제도 창설>

일본의 매력을 해외로 발신해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인 자신이 일본의 매력을 재평가하고 "일본의 독자적인 평가"를 다양한 형태(Award, Prize, Rankling, Recognition 등)로 해외로 발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야구나 축구의 일류급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등 해외에서 활약할 것을 희망하는 한편, 일본 오오즈모에는 몽골 등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가 모여든다. 일본의 매력을 해외로 발신해나가기 위해서는, 오오즈모처럼 "일본에서 평가를 받고 싶다", "일본의 가치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등 "일본의 독자적인 평가"를 다양한 형태로 전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일본의 "Popular Culture"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높다. 예컨대, 디지털시대에 "Popular Culture"의 본고장으로서, 전 세계의 재능과 자본을 일본에 끌어들이려면 "일본에서 인정되어야 비로소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을 실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 중의 하나가, "일본의 독자적인 평가"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세계에 제시하고 장차 일본의 매력을 전할 인력을 국내외에서 늘려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화 등 일본의 독자적인 표현방식으로 만든 작품, 세계가 동경하는 일본을 표현하는 자, 일본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발신하는데 공헌한 외국인 등을 총리대신이 직접 표창하는 제도를 만든다.

<"일본 크리에이티브 센터"(가칭) 설립 등>

세계 사람들에게 "현재의 일본"의 매력을 전하고, "일본에 가보고 싶다", "일본이 좋다"는 생각을 갖게 하도록 "일본의 매력 체험 공간"을,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 각지에서 "일본 크리에이티브 센터"(가칭)로서 설립한다.

동 센터에서는 일본어교육과 유학생지원 등을 비롯한 행사, 예컨대 관·민이 협력하여 "미디어 예술 축제", "일본 패션위크", "새일본 양식", "굿 디자인상" 등 관련 행사 및, 일본의 유명 만화작가에 의한 만화 교실 개최 등 눈에 뚜렷이 보이는 형태로 매력적인 행사를 항시적으로 개최한다.

또 최신 패션과 디자인상품 판매 등을 통한 정보발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본의 "감성" "발신"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해나간다.

또 예컨대 "일본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아시아의 대학에 대하여 일정 기간, 교원 파견, 학생 단기 일본유학 등의 지원과 같은 제안도 참고로 하면서, 발신거점 확충을 위해 대처해나간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본 소개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을 진행, 이를 통하여 "일본의 매력" 발신을 위한 방안의 충실률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아시아의 공동과제에 관한 협력·연구를 위한 핵심기능 강화 ~ 환경·에너지 등에 관한 협력·연구 네트워크 등 구축

앞으로도 아시아가 "열린 아시아"로 발전하여 "세계의 성장센터"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력·기술력을 가진 국가로서 일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크다.

특히 아시아는 환경·에너지 문제 등, 과거 일본이 극복해온 성장과정에서의 제약에 직면되어 있다. 일본은 "아시아 공동과제를 극복한 선두주자"로서 그 "지혜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아시아의 공동과제 극복을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일본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에너지, 감염증, 국경을 초월한 인적이동 등 아시아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포럼 개최, 국제공동연구 실시, 국제연구거점 기능 강화, ICT 활용 등 모든 방안을 시행하고 일본을 핵심으로 아시아 역내외의 정보·인재·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관 등에 대한 전문가 파견을 적극 추진하는 것 또한 불가결하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환경·에너지 : 아시아의 대학간 인재 육성 네트워크를 구축. 에너지 절약, 교통 공해, 화학물질, 해양오염, 산성비, 3R(리듀스·리유스·리사이클)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바이오매스 기술 등 신에너지분야의 연구 개발 및 실증사업을 공동으로 실시. 국제포럼 실시 등으로 일본 환경기술의 보급을 촉진한다.
- 보건위생 : 조류 및 신형 인플루엔자 등 신형·재형 감염증 대책을 위해 WHO, 각국 정부,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위기관리 및 공동연구를 추진. 아시아에서 우수한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공동 임상연구·치험(治驗) 네트워크 구축과 동시에 승인심사에서의 임상 데이터의 상호 이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 이를 위해서도 일본국내 임상연구·치험관련 인재·정보·인프라(기반시설) 거점 정비 등이 시급하다. 각국이 협력하여 위조약품 박멸을 추진.
- 물 관리·공급 : 아시아에서의 식수(食水) 위생, 물부족, 수질 악화, 홍수 대책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제 1 회 아시아·태평양 물 서밋(정상회의)(올해 12 월)에 적극 관여하고 아시아의 물 관리·공급 정책방안 수립 지원 등을 추진.
- 해상안전·해양환경보전 :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등에서의 항행 원조시설 정비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안전확보 등에 공헌. 연안 각국 해상 보안기관의 능력 향상 등을 지원.
- 소방·방재 : 아시아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 소방·방재 포럼(가칭) 개최, WMO(세계기상기관)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 인재 육성·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대처.

-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관한 공동과제에 대하여 각국이 협력하여 조사·연구를 실시, 정책 협조로 이어지도록 동아시아에서의 OECD 와 같은 아우틀라인으로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 및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구 매커니즘을 충실.
- 일본 유럽 간에 최첨단 광학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여, 통신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시아·유럽 정보통신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또한 "열린 아시아를 지향하여 역내 공공재(公共財)를 함께 창조한다"는 시각에서 인프라 정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제도 정비 지원도 한층 더 강화("일본 표준"을 아시아로 보급)하기 위하여,

- 민사·경제·노동·사회보장·환경 등의 법제도 정비 지원
- 에너지 절약 제도(에너지 절약 기준·라벨링 프로그램 등), 공해방지 관리자, 중소기업진단사, 정보처리기술자 시험제도, 모자건강수첩, 파출소 등 일본의시스템을 보급
- 지구온난화방지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을 위한 청정개발 매커니즘(CDM) 추진·활용
- 국제적인 규격·기준 책정을 위하여 적극 관여

등을 추진한다. 이 때 개별 국가에 대한 "점"으로서의 지원이 아닌, 아시아 전체를 "면"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아시아에서 비교적 발전단계가 높은 나라·지역과의 대화·교류를 통하여, 지역전체의 최저수준을 끌어올린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도 핵심이 될 연구자 등 수준 높은 인재 육성·수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학 등 교육·연구 거점을 국제적으로 매력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나간다.

2. 중점 7 분야

아래 7 가지 분야가,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의 중점분야("중점 7 분야")이다. 이 중점 7 분야는,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으로서 특별히 주력할 정책분야로,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이 "최중요 항목 10"이다.

- (1) 인류(人流)·물류(物流) 빅 뱅(Big Bang)
~ 이용자의 입장에 선 항공·항만·무역절차 대개혁
- (2) 국제적 인재 수용·육성 전략
~ 일본을 아시아의 수준 높은 인재 네트워크의 허브로
- (3) 일본 및 아시아의 금융자본 시장 기능 강화
~ 일본의 국제금융센터화, 아시아의 금융자본 시장 육성
- (4) "국내시장형"산업의 경쟁력 강화
~ 글로벌화에 대응한 "공격형" 농업·서비스업 등의 개혁
- (5) 아시아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전략
~ 지역과 아시아의 일대 교류 시대로의 길을 개척
- (6) 일본의 매력을 향상·발신
~ 일본문화산업 전략을 축으로, 감성이 풍부한 크리에이티브 일본으로
- (7) 아시아의 공통적 발전기반 정비
~ 세계의 성장을 지탱하는 "열린 아시아"를 유지·발전

(1)인류(人流)·물류(物流) 빅뱅

~ 이용자의 입장에 선 항공·항만·무역 절차 대개혁

【현황 인식】

- 아시아 일대 교류 시대의 도래 ~ 인구 감소를 아시아와의 교류인구 확대로 대체
-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게는, 항공·해운은 글로벌화 시대의 생명선
- 급성장하는 아시아시장 가운데, 인류·물류 서비스 국제경쟁이 격화

【기본이념】

-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사용 방법" "사용 편의"를 중시하고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
- 개방적 자세로 시야를 국내에서 아시아·와이드(wide)하게
- 일본 전국을 아시아의 게이트웨이로 ~ 지방공항의 국제화를 추진

【정책】

- 간사이(関西)국제공항·쥬부(中部)국제공항의 조조(早朝), 심야 활용 추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 간사이국제공항, 쥬부국제공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아시아에 가까우며 24 시간 운용 체제를 살려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 간사이국제공항은 올해 8 월에 2 개의 활주로 공용으로 일본 최초의 완전 24 시간 공항으로 정비되게 되는데, 아시아 각국 간 경쟁을 감안하여 연락료 요금 인하를 비롯한 이용 편의 개선, 재무구조의 발본적 개선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물류관련 시설 정비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활용을 도모해 나간다. 또 쥬부국제공항에 대해서는 활주로는 1 개인 것과 관련, 주 3 일 유지관리를 위해 심야 폐쇄되어 있으나, 심야 국제화물편 운항 실현을 위하여 장래 완전 24 시간화를 검토, 충분한 활용을 도모한다.
- 지방과 아시아와의 국제 항공 네트워크 확충
 - 국제 전세편의 지방공항 노선 개설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전세 규칙 규제를 완화하고, 이와 함께 CIQ 체제 확보를 도모한다.
- 하네다공항 발착 국제선 전세편 적극 추진
 - 재확장 중에도 잠정 국제터미널 확장 외에, CIQ 체제와 관련, 업무의 양적으로도 그리고 어느 시간대이든 대응 가능한 체제를 확보하므로써 여객 편의 향상(세컨더리 심사 등)을 추진.
- 나리타공항의 기능을 국제거점 공항으로 향상
 - 국제선 기간(基幹)공항인 나리타공항의 활주로 연장 및 하네다공항과의 이용 편의 개선.
 - 도시 중심부로부터 나리타공항까지의 교통이용시간을 국제적으로 손색 없는 수준으로 대폭 단축(50 분대→30 분대)하는 새로운 연락철도를 정비(2010 년도).

- 화물시설정비·재배치, 하네다공항과의 협력등으로 물류 효율화·원활화를 추진.
- 간사이 국제공항·주부 국제공항의 여객 편의 향상과 심야, 조조 활용 및 신속하고 편리한 국제물류를 실현
 - 국제여객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특구 활용도 시야에 두면서 다양하게 추진.
 - 일중(日中) 간 화물을 다음날 아침까지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4 시간운용공항의 이점을 살리는 심야 화물편 운영을, 인택트(intact) 수송 등을 활용하여 추진.
 - 심야 이용 촉진을 위하여, 간사이국제공항의 물류시설 2 기도(2 期島) 전개 및 주부국제공항도(中部國際空港島)·마에지마(前島)의 물류시설 정비 그리고 특구 활용도 시야에 넣고 개선.
- 육해공(陸海空)의 원활한(seamless) 네트워크 정비를 촉진
 - 공항, 항만으로의 도로망 정비를 추진. 특히 거점적인 공항·항만까지 10 분내에 갈 수 있는 도로 정비(금후 약 10 년 동안에 3 개 공항, 13 개 항만 정비 90%를 달성)를 가속.
 - 국제 표준 컨테이너 차량(최대 적재시 차량 총중량이 44 t, 차고 4.1m)의 통행지장 구간 (47 개소) 해소를 가속화(금후 약 10 년 동안에 해소)함과 동시에, 환상 도로 등 고 규격 간선도로 등 정비를 추진하여, 국제물류 기간 네트워크(약 34,000 km)를 구축.
 - 수퍼중추항만에서 세계 수준의 항만 물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케일 메리트를 활용하면서 관·민이 협력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체가 된 종합적 시책을 추진.
 - 임해부에 컨테이너 터미널 등과 일체적으로 기능하는 수준 높은 대규모 물류 거점(물류센터) 형성을 촉진하여 물류 효율화·원활화를 추진.
 - 항만 야간 활용, 주변도로 혼잡 완화 등 항만 물류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지원 시설(검역 등 야간 검사 지원시설, 공동보관시설(depot) 등) 정비를 추진.
 - 국제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퍼 중추 항만에 대하여, "입항부터 인수까지를 하루로 단축, 항만 코스트를 부산항·가오슝(高雄)항 수준으로 저감"할 것을 목표로 공정표를 작성.
- 아시아 전체가 끊기지 않는(seamless) 물류권 구축
 - 아시아 전체를 시야에 둔 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세안 광역 물류망 정비, 무역절차 전자화(아세안·싱글윈도우 구축), 인도의 항만·철도 등 인프라 정비("델리·문바이 간 산업 대동맥 구상" 등), 인재 육성("아시아인 선원 국제공동 양성 프로그램" 등) 등 지원을 추진.
 - 동아시아와의 고속 국제 일관수송 전개를 위하여, 철도 화물 수송력 증강 등으로 Sea&Rail, Sea&Road 서비스를 촉진.

(2) 국제적 인재 수용·육성 전략

~ 일본을 아시아의 수준 높은 인재 네트워크의 허브로

【현황 인식】

-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수준 높은 인재 획득 경쟁, 뒤처지는 일본
- 국제적 인재 수용·육성은 이노베이션(innovation)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 국제화에 뒤진 일본의 대학 ~ 국제화를 "데지마(出島: 쇄국시대의 유일한 무역지)"식으로 인식하는 폐쇄성

【기본이념】

- 수준 높은 인재는 "수용"에서 "획득", "와도 된다"에서 "꼭 와달라"로
- 유학생 정책을 "국제공헌" 뿐만 아닌 "국가전략"으로 규정
- 대학간 경쟁의 무대를 국내에서 세계로

【정책】

- 수준 높은 인재에 대한 체류자격제도 등 재검토
 -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기술자 등 수준 높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관점에서, 아래 점을 포함하여 체류자격제도의 요건, 기간 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한다.
 - 기업활동의 국제화 추세에 맞게 체류자격 "기업내 전근"이 허용되는 활동 범위("기술 및 인문지식·국제업무")를 재검토.
 - 콘텐츠 산업, 투자경영 등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에 대한 수용 확대를 검토.
 - 수준 높은 인재가 일본에 입국, 체류할 경우 그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각국에서 온 수준 높은 인재에 대한 처우 방법, 체류자격별 특성등도 감안하여 재입국허가 제도에 대한 재검토 실시.
-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초빙촉진을 통한 연구환경 국제화
 -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와 일본인 연구자들이 절차탁마(切差琢磨)하는 국제적인 연구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젊은 외국인 연구자, 연구지도자 초빙을 촉진.
-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확충
 - 일본어교육 확충, 외국인 아동과 학생 대상 교육의 충실화 등을 실시.
- 외국인 체류관리제도 재검토
 - 현재, 체류관리 체크는 입국심사시 및 갱신시에만 진행되고 있어 거주지·취로 기업 등 외국인 실태를 충분히 파악 못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 취로 기업 등 정보 파악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여 그 정보를 시, 정, 촌(市,町,村.한국의 市,군,面에 해당)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이 활용할 것을 검토.
 - 수준 높은 인재에 대한 체류자격제도 등 재검토에 대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구축과 동시에 검토.

○기업의 글로벌인재 매니지먼트 촉진

- 다양한 가치관·발상력으로 조직 활성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해외 현지 및 일본 국내에서 수준 높은 외국인 인재를 적극 채용·등용하는 등 우수한 해외 인재를 획득·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인재 매니지먼트 개혁을 촉진.

○아시아의 산업인재 육성

- 기업의 제조 현장을 활용한 산업기술 이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본 유학·연수 경험자와 협력하여 타이-일본공과대학사업 추진 등 현지 산업인재 육성기관 자립화·강화를 지원.
- 금후 동아시아 산업을 젊어질 젊은 층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
- 중소기업 진단사, 정보처리 기술자, 공해방지 관리자, 기능검정 등, 일본 산업발전의 기반이 된 자격제도 등에 대하여, "아시아 표준"을 지향하여 국제적 전개를 촉진.

○외국인 연수·기능실습 제도 재검토

- 실무연수 중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 등 재검토, 문제 발생이 적은 기업 단독형연수에 대한 기준 완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단체 감리형연수에 대한 적정화,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 엄격화, 기능실습 대상 직종 재검토와 요망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 검토 등 아시아 인재 육성에 공헌하는 방도를 재검토.

(3) 일본 및 아시아의 금융자본 시장 기능 강화

~ 일본의 국제금융센터화, 아시아의 금융자본 시장 육성

【현황 인식】

- 일본의 금융 서비스업과 금융자본 시장의 편익성 결여
- 자산 운용에서 낮은 수익성
- 불안정한 자금순환 구조 ~ 아시아의 자금이 유럽·미국을 경유하여 아시아로 환류

【기본이념】

- 일본 및 아시아의 금융자본 시장을 자금 운용자·조달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 일본을 통하여 아시아의 자금을 아시아에서 순환
- 금융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 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자산 운용을 활성화

【정책】

※ 경제 재정 자문회의 등 논의에서 아래 시점을 중시할 것을 제안.

<아시아의 금융센터화>

- 예탁증권(JDR) 활용, 영문 개시 촉진, 영어를 사용한 정보제공 강화, 아시아의 벤처기업 대상 투자 강화 등
- 국제적으로 손색 없는 금융자본 시장 인프라(기반시설) 등 구축
 - 증권·자금결제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집중결제 시스템 창설.
 - 운용체제를 포함하여 연금운용에 대하여 검토.
 - 확정거출연금(401K) 확충을 검토. 기업연금 확충을 위해서는 공적 연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 각국의 연금제도 구축을 위하여 협력.
 - 투자가 보호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외국에서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예:상품 가격에 연동한 ETF) 거래 가능성을 검토. 단, 도쿄공업상품거래소에서 도쿄증권거래소로 옮기는 것만으로 상품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문제가 있을 것.
 - 높은 리스크를 부담한 사람에게는 장기적, 평균적으로 높은 리턴이 확보되도록, 투자신탁 등 상품성을 개선.
 - 주주(투자가)의 입장에 선 기업통치 강화.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임원의 독립성 강화 등을 검토.
 - 크로스 보더(cross border)의 국제시장 창설을 지향하는 민간부문의 주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비거주자가 지급 받게 되는 적정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화를 검토.
 - 사채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은행 론(loan) 등 유동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금융상품거래법의 "공정한 가격 형성" 이념을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

○프로(전문가) 대상 시장 창설 및 프로 육성

- 프로 상호간 거래의 장을 창설하고 영문 개시, 개시기준 등 규제를 완화.
- 전문인재 육성에 배려하여 금융기관에서의 단기 로테이션 시스템 등 인사체계를 재검토.
- 유학생 취직에 대한 산·학 협력을 강화. 【재계재】
- 대학에서, 체계적인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 【재계재】
- 국제기관에서의 일본인 직원 수를 늘린다.

○대도시권 국제공항의 24 시간운용, 항공 자유화(아시아·오픈 스카이) 추진 【재계재】

○규제·감독의 충실 및 투명성 제고

- 진정한 자주규제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
- 자주적인 분쟁해결 기능 (금융 ADR)의 충실을 검토.
- 금융자본 시장 규칙 및 감독당국의 객관적 행동기준을 명확화
- 전문인재 확보·육성을 포함하여, 시장행정체제를 강화.
- 과징금제도를 확충.
- "사전심사청구제도(No action letter 제도)"에 대하여 계속 재검토하고 관·민 인재교류 촉진 등을 통하여 금융당국과 업체 간 의사전달을 개선한다.

<아시아와 연계하여, 아시아에 국제 금융자본 시장을 창설>

○EPA 협상 등에서의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

○치앙마이합의(CMI)의 멀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인도와 유동성 관련 지원을 위한 약정을 체결.

○크로스 보더(cross border)의 아시아 국제채권시장 창설 등

- 아시아 채권시장육성 추진을 한층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 아래 아시아 역내에 각국의 규제 범위를 초월한 유로시장 수준의 자유 허용도가 높은 크로스 보더 시장의 창설을 지향한다.
- 이슬람 금융에 관한 지견을 축적하고 아시아 역내에서 활용.

○아시아에 대한 투자 원활화

- 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 개발금융 지원, 노하우 이전을, 기술, 인재, 원조를 일체적으로 공급 지원하는 발상으로 추진한다.
- 아시아의 금융자본 시장 정비를 위한 지적 지원, 기술지원 강화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민간금융기관등의 활동을 원활화한다.
- 이 때, 불량채권 처리를 포함한 제반 금융개혁의 경험에 기초하여, 정부간 및 관·민 교류를 통하여 지견 공유를 도모한다.

(4) "국내시장형"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글로벌화에 대응한 "공격형" 농업·서비스업 등의 개혁

【현황 인식】

- 인구 감소 사회의 도래와 해외로부터의 참여 확대
- 기술혁신 및 글로벌화로 국제적 전개 기회가 모든 산업에게 도래
- 안전, 환경, 감성, 전통 등 "보이지 않는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시대로

【기본이념】

- "비무역재"를 "무역재"로 재조명
- 제조업의 우수한 노하우를 농업, 서비스업에 도입
- "일본의 매력""지역의 매력"을 브랜드력으로

【정책】

- 시장의 보더레스(borderless)화에 대응한 비제조업 등의 경영력 강화
 - 대량 퇴직이 예견되는 제조업 인재에 대한 비제조업으로의 재취직 지원 등을 통하여, 제조업의 생산관리적인 노하우를 비제조업으로 전개.
 - 해외인재 적극 등용 등 기업의 글로벌 인재 매니지먼트 추진을, 선진 사례 축적·보급 등으로 지원.
 - 아시아 등 해외시장의 정보수집·조사분석 기능을 범국가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 법무 등 서포팅 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
 - IN-OUT 형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M&A 활성화.
 - 공공서비스업(수도사업 등) 등 소위 "관영사업"의 해외 진출도 촉진.
- 브랜드력을 활용한 지방산업, 서비스업 등의 국제 전개 지원
 - 안전, 환경, 감성, 전통 등 일본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대외로 발신.
 -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일본 브랜드" 구축·발전을 지원.
 - 정부, JETRO 등 관련기관에 의한 해외 무역투자 환경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기능을 강화.
 -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 대 일본 직접투자 등 추진
 - 대 일본 직접투자를 2010 년에 GDP 비로 2 배로 증가시킬 계획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대 일본 직접투자가속 프로그램을 착실히 실시.
 - 해외의 우수한 인재의 입국·체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주 환경 개선 및 입국관리 재검토 등 실시.
 - 여행자, 유학생 등 일본을 방문하는 "소비자"로서의 외국인을 늘려, 국내 시장의 "내적 국제화"를 추진.

(5) 아시아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전략

~ 지역과 아시아의 일대 교류 시대로의 길을 개척

【현황 인식】

- 일본 방문 외국인의 70%는 아시아로부터 방문. 아시아와의 교류 인구 확대가 활성화로의 열쇠가 된다.
- 아시아를 중심에 두고 볼 때, 지역의 산업 입지조건은 대도시권보다 능가할 가능성이 있음
- 자연, 역사, 문화, 전통 등 일본의 각 지역은 다양성이 풍부한 "매력의 보물고"

【기본이념】

- 아시아의 활력을 일본 전국으로, 지역의 시선을 "도쿄"에서 "아시아"로
- 광역적인 협력을 제고하여, 관·민 일체로 자주적·자립적인 실천을 촉진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혜와 연구"로 개성적인 매력을 발신

【정책】

- 지역의 인력·인재 육성 지원 강화
 - 지역의 매력을 발굴·발신해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주체(NPO, 기업, 자연조직, 개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인재 육성·네트워크화, 산·학·관 간에 새로운 파트너십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활동을 활성화.
 - 지역을 초월한 인재 교류를 촉진하여 담당인력 상호간이 지역적 과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교류를 촉진.
 -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지역 거점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 연구·교류 프로젝트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의 노력을 지원.
- 지역의 지혜와 노력을 활용한 지원제도 정비
 - 각 부처 등의 지역자원 활용 지원제도, 모델조사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이 지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개성적인 노력과 선도적인 노력(대학과의 협력, 농산품 등 수출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실천적인 사회실험 등)을 지원.
- 국제회의 등 유치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 책정
 - 국제회의, 국제적인 연구 및 교류 거점을 유치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및 대학 등의 실천을 국가적으로 지원. 이를 위하여 국제회의, 국제적문화행사, 국제 전시회·건본시 등을 유치하는 행동계획(기본전략 책정, 범국가적인 추진체제 정비, 인재 육성, 국제회의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책정.
- 일본방문 관광객 확대에 기여하는 원활한 입국절차 실현
 - 국제항공편이 증가하는 하네다공항, 지방공항에서 세컨더리 심사(입국 목적에 의의(疑義)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와 지방공공단체의 협력에 의한 심사지원팀 등의 전개를 확대. 또한 프리클리어런스(pre clearance)(외국의 공항에 입국심사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체크하는 것)에 대하여, 대만에서의 요원 파견 기간을 늘려 실시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한국·대만에서 효과를 검증한 후, 일본방문 주요 관광객 송출 국가로 확대 전개하기 위한 협상 개시 검토.

- 관·민 국제회의, 스포츠·문화행사 등 유치, 일본방문 관광객 확대 등을 위하여, 주요 국제공항 및 개최지 공항에 행사관계자를 위한 우선 레인(프라이어리티 레인) 상설 또는 잠정 설치 또는 기존 레인에서의 대상자 확대를 검토.

○국제 교류·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 구조를 정비

- 관광지과 물류 거점으로의 역세를 강화하는 도로기반 정비.
- 지역 활성화를 단발적인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전개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대 일본 투자, 관광진흥 촉진을 위한 지원 추진.

(6) 일본의 매력 향상·발신

~ 일본문화산업 전략을 축으로, 감성이 풍부한 크리에이티브 제팬으로

【현황 인식】

- 전통과 테크놀러지로 엮어내는 "문화자원 대국" 일본
- 디지털화가 가져다준 "새로운 표현수단"과 "누구나가 생산자"로의 변화
- 문화산업은 일본의 경제적인 이익, 외교적 이익과 직결

【기본이념】

- 일본 자신이 일본의 매력을 재평가하여, 평가축을 스스로 세계에 발신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 표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감성도 발신
- 대중의 심미안과 표현력 등 문화산업력의 근원인 "토양"을 중시

【정책】

- 일본을 크리에이션의 거점으로 함과 동시에 그 매력을 발신
 - "일본 패션위크", "미디어 예술 축제", "일본 국제 콘텐츠 축제", "새로운 일본 양식", "굿디자인상" 등의 행사를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하여 매력 발신을 강화.
 - 필름 아카이브(archive)의 거점인 필름센터 기능의 확충 등으로 일본 현대문화의 아카이브 충실 및 미디어예술의 거점화를 추진.
 - 해외 크리에이터와 전문가 등에 대한 발신 강화 및 작품의 해외 전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의 국제 공동제작 등을 촉진.
 - 일본 음식·일본 식재료를 적극 해외로 발신.
 - 건축의 올림픽인 "UIA(국제건축가연합) 2011 년 도쿄대회"개최를 향한 전략적인 대응.
 - 일본의 자연, 일본인이 자연을 즐기는 방법,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을 적극 해외로 발신(유학생이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정보를 제공).
- 일본의 매력을 해외로 발신하는 기반을 정비
 - 국제공항 등을 "일본의 매력"을 보여 주는 우수 상품·감성·음식문화 등의 발신을 위한 체험 거점으로 활용. 또한 지역 브랜드, 차세대 미술가들이 발신하는 무대로 활용.
 - 대사관, 재외공관을 활용한 행사 개최 등 "일본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발신.
 - "애니메이션문화 대사(大使)(가칭)" 사업 추진.
 - "외국인 대상 영상을 이용한 국제방송 강화"를 지향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일체적 노력 추진.
 - 해외로부터의 역세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영어 등 외국어로 발신하는 등 ICT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 발신을 촉진.
 - 해외에 일본산 농림수산물 등 상설 점포 설치.
 - 일본문화 발신 거점으로서 아시아 "만남의 장" 설치.

○해외 전개를 시야에 둔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분야별, 지역별 행동계획을 포함한 "콘텐츠 글로벌 전략"을 책정하고 해외 전개를 가속화.
- 해외를 시야에 넣은 콘텐츠 제작, 멀티 유스를 촉진하여, 투명성 있고 개방적인 콘텐츠 거래시장을 형성. 동시에 그 성과를 클리에이터와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환원.
- 콘텐츠 사업체의 법무능력 향상.

○문화산업 기반 정비

- 어린이들의 창작활동이나 감수성을 육성하는(디자인, 공작, 그림 등을 즐기는) 활동 추진.
- 초등·중등학교 등 학교교육에서 어린이들의 창조성을 육성하는 체험활동을 충실.
- 산·학 협력 등으로 콘텐츠 분야를 지탱하는 폭 넓은 인재를 육성.
- 아시아에서의 젊은 클리에이터 육성 거점화를 위하여, 예컨대 학생팀 대항 패션 컨테스트 거점을 국내에 정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인재 육성(국제적인 프로듀서, 엔터테인먼트 로이어 육성 등).
- "감성가치 창조" 활동 지원, 국민운동화 추진.
- 비즈니스 스킴(scheme)을 지탱하는 저작권제도 구축.
- 세계를 선도하는 콘텐츠관련 기술 개발, 보급 추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문화재 등 보존·활용

- 세계를 매혹하는 "문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통예술에서 현대적 문화예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
- 각 지역의 개성과 특색을 보여 주는 목조 건축물 보존 수리와 지역 축제 보존 계승 등 문화재 보존·활용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과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기반을 확충.

○국제 문화교류 추진 및 일본어교육의 충실

- 예술가 등의 상호교류 등 문화예술을 주축으로 한 국제교류 추진.
- 아시아에서 해외학습 거점을 크게 늘리고 일본어 능력시험 재검토를 추진하는 등 일본어교육 강화.
- 해외 현지에서 문화발신, 일본어교육과 유학생 지원 서비스를 일체적으로 지향하기 위하여 각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 문화적 다양성을 배려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유형·무형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협력.

(7) 아시아의 공통적 발전기반 정비

~ 세계의 성장을 지탱하는 "열린 아시아"를 유지·발전

【현황 인식】

- 민간 주도로ダイ내믹하게 발전하는 "열린 아시아"
- "아시아와 일본"에서 "아시아 속의 일본"으로
- 여러 성장제약 속에서 발전하는 "세계의 성장센터"

【기본이념】

- 아시아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기술"의 허브를 지향한다
- 민간의 힘을 최대한 활용한 "열린 아시아"를 유지·발전
- 국경의 벽을 느끼지 않으면서 비즈니스가 가능한 심레스(seamless) 아시아를 구축

【정책】

- 일본과 아시아역내외를 원활(seamless)하게 연결하는 공통 인프라(기반시설)·제도 구축
 - 끊기지 않게 연결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광역 물류망 정비와 절차 전자화. 【재게재】
 - 아시아 금융자본 시장 육성. 【재게재】
 - 아시아에서의 브로드밴드 이용 보급, 정보유통 확대등을 통하여 아시아가 세계의 정보 거점이 되도록 ICT 기반을 정비.
 - 일본 법령등 외국어번역과 편리한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하여 아시아의 공통적 발전기반 정비에 기여하는 다언어 정보발신을 확충.
 - EPA 협상, APEC 등을 활용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적 재산제도 정비, 심사, 인재 육성, 정보화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
 - 환경, 장기적 경영을 위한 시점 등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경쟁축·평가축 설정(지표를 제시하는 등)을 촉진.
- 민간의 힘을 활용한 아시아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
 - "아세안 공통 투자환경 구상" 등 기업·투자가의 의견·평가를 지렛대로, 자율적인 아시아 투자환경 정비를 촉진.
 - EPA 비즈니스 환경정비의 틀 등을 활용하여,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정비를 관·민·각부처 횡단적으로 추진.
 - 단카이(團塊, 베이비 붐) 세대 등이 아시아에서 활약할 기회를 확대.
- 관련기관의 협력과 기능 강화
 - 재외공관, J I C A(국제협력기구), J B I C(국제협력은행),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 N T O(국제관광진흥기구), CLAIR(자치단체 국제화협회), 국제교류기금 등 재외 관련기관과 밀접히 협력.
 - 일본아세안센터의 역할 재검토(일본에 대한 관광 및 투자 촉진, 일본으로부터의 수출 촉진을 센터 업무로서 추가).

○EPA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

- 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 강화를 위하여 인도 등과의 EPA, 동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광역 경제 협력을 위한 연구를 추진.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

- 각국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협력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점"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면"에 대한 지원으로). 이를 위한 체제를 정비.
- 관·민(NPO·NGO 등) 협력 강화.
- 엔 차관의 원활화·신속화 등을 통한 전략적·기동적인 국제 협력을 실시.
- 아시아에서의 기초·고등교육 협력 확충을 통한 지적 인프라 정비·일본이 노하우를 전수.

맺음글

지난해 9월 아베 총리는 활력 있고 개방적인 경제사회를 구축하여 일본이 힘차게 성장해나갈 것을 소신포명 연설에서 밝혔다. 이러한 "아름다운 나라" 실현을 지향한 정책 기동 중의 하나가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이다.

이 구상은, 아시아 등 해외의 성장과 그 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람·물품·자금·문화·정보의 흐름 속에서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되려는 구상이다. 나는 경제재정담당 총리대신 보좌관으로서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 구상의 실현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찬동하는 전문가 여러분의 참여로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회의"가 발족을 하게 되었다.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회의는 지난해 11월 8일에 제 1회 회의를 가진 이래 오늘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들과 자리를 함께 해 활발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도록 회의장 이외에서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무역절차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과제를 집중 토의하기 위해 관련부처 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무역절차 등)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여, 관·민 공동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개혁안 작성을 추진하였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민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문팀"이 계속 검토하였다.

또한 문화, 농업, 대학 국제화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실무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를 심화시켜왔다.

이와 병행하여 전략회의 성원을 포함한 스태프들이 국내외의 수 많은 전문가, 실무자, 시장관계자 등과 직접 의견교환을 거듭, 폭 넓은 정보와 견해를 복선형으로, 기동적으로 수집하는데 주력하며 검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 구상이 작성되었다.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약 200명 이상)을 소개 드릴 수는 없으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은, "아름다운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상을 아시아 게이트웨이를 발단으로 하여, 기본적인 입장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까지 포함시킨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로,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구체화해나가야 할 구상이다. 이 구상 자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기탄 없는 의견과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화를 하는 과정에 국민 한분 한분이 꼭 참여해 주셔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07년 5월 16일 내각총리대신 보좌관(경제재정 담당)네모토 다쿠미(根本 匠)